

## Real-life Experience of the Elderly Vulnerable to Suicide

Nam Jae Heo<sup>#</sup>, Yeon Ok Lim<sup>+</sup>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1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Korea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real-life experience of the elderly who are vulnerable to suicid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elderly at risk of suicide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grounded theory method. Their life experiences were classified into 56 concepts, 16 subcategories and 6 categories and a paradigm model was proposed by axial coding. The paradigm model illustrated that “cumulative hardship” (causal condition) and “inescapable hopelessness” (contextual condition) are connected to “starving to death” (central phenomenon), along with “life strings” (intervening condition), “holding out” (action/interaction strategy), and “hope for a good death” (internal consequence). These results allowed us to understand the elderly suicide phenomenon through the cumulative disadvantage theory of aging and the theory of hopelessness depression. Moreover,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network in the community and provide the programs which stimulate the meaning of life and develop an optimistic view on life for the elderly vulnerable to suicide.

**Key words:** suicide, cumulative disadvantage, hopelessness, depression, social network, death

### 1. 서론

현 한국사회에서 노인세대를 관통하는 단어는 ‘불안’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삶을 보여주는 사회지표 중 자살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2015년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8.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18.4명)보다 3.1배 높은 수준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9).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21.1%에 해당하는 노

인이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고, 6.7%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이중 13.2%는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Jung, *et. al.*, 2017).

이러한 노인자살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노인의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먼저, 자살을 설명하는 이론은 자살을 사회적, 구조적 요인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사회통합이론, 절망감이 자살의 주요 핵심기제를 주장한 절망감 이론, 자살에 이르는 인과과정을

<sup>#</sup> The 1st author: Nam Jae Heo, Tel. +82-33-248-3091, Fax. +82-33-248-3049, e-mail. joyheonj@gmail.com

<sup>+</sup> Corresponding author: Yeon Ok Lim, Tel. +82-33-248-3091, Fax. +82-33-248-3049, e-mail. marialim@chol.com

6단계로 밝힌 자기도피 이론,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맥락에서 정서적 조절장애와 감정 불인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살행동이 발생함을 주장한 정서조절장애 이론, 심리적 고통이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의 원인이 됨을 주장한 심리적 고통이론,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된다는 느낌이 자살생각을 일으키고 이러한 욕망이 치명적인 자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상호작용할 때 자살생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대인관계 이론, 준거 집단에 속한 누군가가 자살할 경우 자살을 따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살제안 모델 등 여러 이론들이 있다. 그런데 이 이론들을 노인에게 적용하여 설명한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노인자살 현상을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다(Lyu, 2018).

2000년 이후 본격화된 노인자살에 관한 다수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양적 분석방법을 통해 노인자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거나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밝히고 있다(Kim, 2002; Eom, 2007; Bac & Um, 2009; Lee, 2010; Lee, 2017; Hwang, *et al.*, 2017; Lim & Yoon, 2017). 이러한 양적 연구들은 자살사망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다루고 있어서 자살 고위험군 발굴에는 유용하지만, 자살 고위험 노인이나 자살 시도 노인을 대상으로 개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닌다(Heisel, 2006; Kwon, *et al.*, 2013).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양적 연구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부족하다. 자살을 시도한 지 5년 이내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Park(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삶의 바닥을 치는 고통과 자살 경험을 통해 자신과 삶, 가족과 이웃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고통과 여생에 대한 희망을 공존해나가며 살아가는 법을 익혀나가고 있었다. Im & Kim(2010)의 연구에서는 자살 시도 노인들은 힘든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시 살아난 후에도 여전히 삶은 힘들지만 삶에

순응해가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감을 보고하였다. Kim(2013)은 자살 시도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자살 시도를 자신을 괴롭히는 위기에 더 이상 맞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고통을 못 넘기고 실수한 것으로 표현하였으며, 자살 시도 이후의 삶을 여전히 죽고 싶은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막연히 살아가는 사람,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으로 유형화하였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녀가 잘 사는 것을 보고 싶은 소망과 깨끗한 죽음에 대한 소망, 그리고 순간순간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삶을 유지해감을 보고하고 있다. Lee & Choi(2015)는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도시 거주 후기고령 노인들은 모진 세월의 회한, 절망적이며 처량한 신세, 무가치한 삶, 참을 수 없는 통증과 무기력함, 의지할 곳 없는 고독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Oh, *et al.*(2018)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후기고령의 남성 독거노인 1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는데, 배우자와의 이별로 인해 기대했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홀로 생활하던 중 질병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게 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판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나, 다시 살게 된 후에도 의지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임을 느끼고 체념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질적 연구들은 자살 시도 후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과거 기억에 의존하여 자살 계기와 살아난 후 적응하는 삶을 재구성하고 있어서 현재 자살 위기에 처한 노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노인자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지식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자살 위험요인을 지니고 자살 유혹과 충동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현재 자살 위기 속에서 생을 이어가고 있는 노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

하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인적사항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자살 위기 속에서 생을 이어나가고 있는 자살 고위험 노인이다.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가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춘천노인생활실태조사(2016)’<sup>1)</sup>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먼저, ‘춘천노인생활실태조사’ 설문문항들 중에서 The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Revised (SBQ-R)와 ‘지난 2주간의 자살행동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SBQ-R을 구성하는 4개 문항 중 “자살을 하려고 생각해보거나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 2,000명 중 ‘자살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시도는 하지 않았다’ 15명, ‘자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고 정말로 죽고 싶었다’ 17명으로 자살 계획을 세워본 사람이 32명이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죽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5명, ‘자살을 시도해본 적 있고 정말로 죽고 싶었다’ 54명으로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59명이었다. 이렇게 자살계획을 세워 본 사람이나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 사람 7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의 자살행동척도’<sup>2)</sup> 총점을 확인한 결과 4점 이상인 사람이 자살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 32명 중에서 8명,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59명 중에서 12명, 총 20명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우울은 노인 자살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다(Yang & Lim, 2006; Kim & Kim, 2007; Han, *et. al.*, 2009; Kwon & Hur, 2013; Shah, 1998). 따라서 SBQ-R 문항에서 자살계획이나 자살 시도 경험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지만, 한국형 노인우울단축형척도(Short form of Korean Geriatric Depression Scale) 점수가 10점 이상으로 우울위험군으로 분류된 143명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 자살행동척도’ 점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43명 중 자살행동척도 점수가 4점 이상인 27명이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연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총 47명에게 연구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난 설문조사 이후 우울정도와 자살 생각의 변화를 물어보고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 한 후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개별 심층면접에 참여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다. 47명 중 면접을 거절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입원하여 치료 중인 노인을 제외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명하고 의사표현이 자유로워 자신의 경험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10명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결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3명, 여성 7명이었으며, 나이는 70세에서 90세까지로 7명이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이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 아들과 함께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 각각 3명씩이었으며, 여성 1명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었다.

경제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수입원들을 살펴보았는데,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명,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5명이었으며,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 사람이 2명,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명이었다. 그리고 노인 일차리에 참여하고 있는 3명은 기초연금이나 자녀로부터의 용돈과 같은 다른 수입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1명은 최근 1년 내에, 다른 1명은 젊은 시절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1명은 자살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고, 7명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은 <Table 1>과 같다.

1) 춘천노인생활실태조사는 65세 이상 춘천지역 노인을 지역, 연령, 성별로 할당표집 하였으며, 표본에 대해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1대1 면접을 통해 진행되었다. 총 표본은 2,000명이며 남자 784명, 여자 1,216명이다.

2) 자살행동척도(Depressive Symptom Inventory-Suicidality Subscale: DSI-SS)는 최근 두 주간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생각 통제 및 자살충동 정도를 측정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3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것을 합산하여 활용한다.

Table 1. Personal information of participant

Participant	Age(gender)	Education	Type of residence	Family living together	Sources of income	Suicidal ideation, plans, attempts
1	70(male)	Elementary school	Permanent rental apartment	Eldest Son	Earned income, basic pension, allowance from children	Attempted
2	73(female)	No formal education	Permanent rental apartment	Living alone	Benefit of basic livelihood	Attempted
3	79(female)	Elementary school	Tenement house (self owned)	Eldest son	Military pension for the bereaved family	Plan
4	84(female)	No formal education	Multi-family house (monthly rental/ semi basement)	Living alone	Basic pension, job for senior	Suicidal ideation
5	90(female)	No formal education	House (self owned)	Living alone	Basic pension, job for senior	Suicidal ideation
6	81(female)	No formal education	Permanent rental apartment	Second son	Benefit of basic livelihood	Suicidal ideation
7	76(male)	School of Education	Apartment (self owned)	Wife	Teachers' pension	Suicidal ideation
8	70(female)	Elementary school	Apartment (self owned)	Cohabitation man	Basic pension, national pension	Suicidal ideation
9	79(female)	No Formal Education	House (self owned)	Husband	Basic pension	Suicidal ideation
10	83(male)	School of education	Permanent rental apartment	Wife	Allowance from children, job for senior	Suicidal ideation

##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개별 심층면접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1명이 연구보조원과 함께 수행했으며, 노인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인 자택, 인근 카페, 복지관 등에서 만나 2시간씩 두 차례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참여자가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한 후 시작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다.

개별 심층면접은 다시 한 번 더 연구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어르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현재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표현한 ‘살고 싶지 않다’ 또는 ‘죽고 싶다’ 등의 내용에 대해 심층질문을 시도하여 “이러한 생각이 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구체적으로 자살을 어떻게 계획하였는가요?”, “자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

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가요?” 또는 “자살을 시도한 후에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가요?”등을 질문하였다. 면접 후 당일 연구자는 현장일지를 작성하였고, 이는 녹취록과 함께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자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의 삶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Ground Theory)이란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둘러싼 과정과 궤적에 대하여 추상적 개념화와 이론화를 시도하여 사회적 실재에 대한 실체적 이론뿐만 아니라, 형식적 이론을 생성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이다(Stern, 2001). 근거이론 연구방법론에서 활용하는 코딩방법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분석방법은 범주화 과정에서 연구대상인 현장의 조건,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전술과 전략, 그 결과 등에 대해 연구자가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 분석하며 범

주들을 연결시킴으로써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해내도록 한다(Lee, 2014).

자료 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시도하였다. 첫 단계인 개방코딩(open coding)은 원 자료로부터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로 원 자료를 면밀하게 읽고 행간의 의미를 분석해 개념을 명명한 후, 여러 개념들 가운데에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묶어 하위 범주를 구성하고, 하위범주들을 다시 묶어서 범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축 코딩(axial coding)은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범주들을 현상에 관련된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구조로 분석하였다.

#### 4.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과 연구참여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HIRB-2016-024).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Lofland & Lofland(1995)와 Padgett(1998)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윤리지침을 구성하고 이를 준수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춘천노인생활실태조사(2016)’의 설문조사 당시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조사 종료 후 추가 조사를 위해 연락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연구자는 개별 심층면접을 실행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설명한 다음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참여에 동의를 하였을지라도 연구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면접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별 심층면접을 모두 종료한 후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살 위기의 우울한 노인을 대상으로 기획된 문제해결 프로그램(Problem Solving Therapy)에 참여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참여를 원하는 남성 참여자 2명과 여성 참여자 1명, 총 3명을 대상으로 8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의 편견을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연구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가짐으로써 질적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편견, 오류, 자의적 해석 등을 예방하였다.

### III. 연구결과

노인이 어떠한 삶의 맥락에서 자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자살 위기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개방코딩 과정을 거쳐 56개 개념, 16개 하위범주, 6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개방코딩에서 얻은 개념들을 범주화하여 축코딩을 한 결과인 패러다임 모형을 <Table 2>와 <Figure 1>로 제시하였다.

축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경험을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인과적 조건: 누적되어온 고달픈 삶

인과적인 조건은 어떤 현상의 발생을 이끄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일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누적되어온 고달픈 삶’이 중심현상의 인과적인 조건으로 나타났다. 자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은 초년부터 주어진 고달픈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년에도 가난과 질병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고생하며 살고 있었다. 이러한 고달픈 삶의 누적은 ‘과거 삶이 순탄치 못함’, ‘자식이 온전치 못함’, ‘노년도 고달픈’의 세 개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 1) 과거 삶이 순탄치 못함

‘순탄치 못한 과거’의 삶은 초년에 부모님이 돌아가

Table 2. The Paradigm model for life experience of the elderly living in suicide crisis

Paradigm	Category	Sub-category	Concept
The causal condition	Cumulative hardship in lifelong	Early life of hardship	No luck of having good parents, abused by parents, not educated, got married to a poor family, wasted property by spouse, got unstable job, incompetent husband, husband's affairs, suffered from husband's delusional jealousy of wife, young husband's death, divorced, remarried, suffered in lifelong
		Children's troubled life	Not well educated children, alcoholic son, son in debt, son who dissipated his property, son's divorce, son with mental illness, broken relationship with children, my fault on children's trouble
		Hardship in old age	Being sick, lack of living cost, working for living, living entire miserable life
The contextual conditions	Not escaping from hopelessness	Loneliness	Loneliness, isolated, yearning
		Helplessness	Guilty conscience, enervated, sense of shame
		Anxiety	Anxiety
		Upset	Upset, chagrin
The central phenomenon	Starving death	Engaging in suicidal thoughts	Desiring suicidal ideation, desiring for death due to depression
		Seeking how to suicide	Seeking how/where to suicide
The intervening conditions	Life string	Depending on others, not family	Talking one's mind, receiving care from others not family, hanging out
		Doing responsibility for family	Waiting for child, caring for children, can't die based on the idea of embarrassing a family, trying not to bother my sister
		Controlling mind	Thinking of suffering in the afterlife after suicide, thinking positively, taking depression medicine and feeling down, trying to keep up with regular life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Holding out	Regarding as destiny	Regarding as destiny
		Resigning	Holding out until end of life, living like living in the afterlife
The internal consequence	Hope to good death	Hope to die without bothering to children	Not wanting to bother to children, cleaning up one's stuffs, leaving a will
		Hope to die without pain	Death after getting sick for fews days, death without pain

시거나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성장하였고, 결혼생활도 불행하였으며, 본인의 일자리나 남편의 별이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곤궁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였고, 어린 나

이에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무능한 남편을 만나거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갖은 장사와 공장일을 비롯해 폐지 줍는 일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리고 여성 노인들은 술과 노름, 사업, 외도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남편, 폭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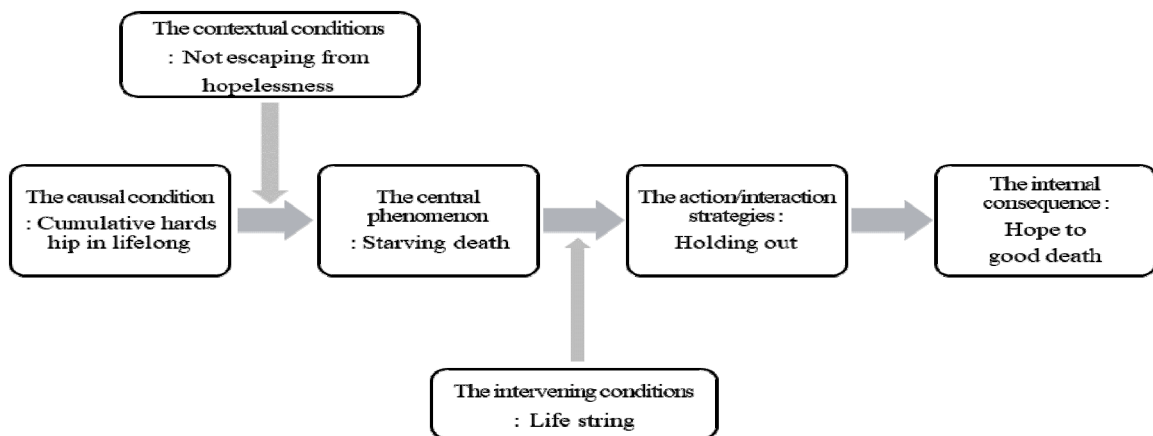


Figure 1. The Paradigm model of 'life experience of the elderly living in suicide crisis'

휘두르는 남편, 또는 의치증이 심한 남편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끝내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재혼을 하는 등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인생이 인제 이렇게 뒤집힌 거야. 평탄하질 않고.. (중략) 우리 엄마랑 남편 이랑 때려맞고 양쪽 귀가 고막이 다 터졌어. 그러니까 안 들리더라고.....”(참여자8)

“옛날에 시집은 일찍 가구 공부도 안하고 공부도 안고 일찍 갔어. 그래서 그때는 아주 못살아가지고 고상 많이 했어요 처음에 시집가서 고생한 거 또 그때는 밥이 없어서 고생하고 또 영감이 죽으니까 애들 키워서 그 초등학교라도 땡기니까 밭에 나가 돈 벌어다가 줬죠”(참여자4)

“배우지 못해 노니까 더구나 직장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직장을 하나 잡으면은 (중략) 인건비도 못 받고 옛날에는 그랬어요”(참여자1)

“내가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학교를 보내지. 뭘 두부장사도 하고 뭘 채소장사도 하고 별놈의 거를 다하는데, 누가 와서 저 화장품 장사를 하라고 화장품 장사를 하면 아들 공부시킬 수 있다고 그래. (중략) 그래서 누가 화장품 장사를 날 데려가서 시작을 해가지고 했거야.”(참여자5)

“우리 영감님이 의치증까지 있어가지고 참 내가 구박받고 구속당하면서 살았어.”(참여자3)

“하도 술 먹고 때려서요 맨 날 와서 두드려 패고 이거 부시고 그래서 살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혼했어요”(참여자8)

## 2) 자식이 온전치 못함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자식들을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하였고, 특히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못한 아들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부모와 자식 모두 서로 살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상호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지냈으며, 방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와 대화가 거의 없었다. 특히, 아들이 알코올중독이 심하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신체장애를 갖고 있어서 자립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했어도 이혼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이러한 상황을 부모를 잘못 만난 탓, 즉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었다.

“애들도 초등학교 보내고 대학교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일을 저 일은 사무 보는 데로 못 들어가고 저 한 데 가서 일하고 지게품 파는 그런 데로 가는 거야. 그런 노동일 하러 가는 거야.”(참여자4)

“저렇게 알콜중독자가 되가지고 동네병원에 한 10개월인가 있었어.”(참여자3)

“아들이 팔아서 저희도 실컷 못쓰고 노나서 다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노나서 쓰고 저희도 집도 없어요.”(참여자4)

“아들 혼자 살아요 떠느리도 가고 없어요”(참여자9)

“막내아들하고 큰아들은 몇 년 동안 안 봤어요 봐야 속상하고 아유 전화도 안하고 오지도 안해.(참여자8)

“내가 난 자식인데 모든 게 내 죄 내 탓인데, 내 죄 내 팔자고 내가 죄가 많아서 저런 자식을 낳았어.”(참여자3)

## 3) 노년도 고달픈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노년에도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다. 몸이 아파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폐지나 담배꽂초를 줍거나 노인일자리 등의 일을 찾지만 일하기에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며 일자리 찾기 또한 쉽지 않았다. 그리고 연금, 기초생활보호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해 충당되는 생계비가 부족하여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노년에도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 참여자들은 초년시절부터 노년까지 좋지 않은 삶을 살아왔

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내가 아프니까 뭐뭐 생각 하나면 아, 이래다가 아 파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는 거까지 생각하잖아요” (참여자7)

“생계비가 30 만원이야. 또 노인돈이 20 만원이야. 그럼 노인돈 가지고는 세금내고 뭐 지질한 거 쓴 거 나가고, 30만원가지고 살래야 못살아 힘들어. 지금 물 가 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반찬을 안 사다 먹고 그냥 받아먹지.”(참여자2)

“내가 벌어들여 해달라니까 담배꽁초 주우면 돈을 좀 줘요. 담배꽁초 주우러 나가면 길에 이거 종이대기 줘고 이렇게 해서...”(참여자4)

“일자리가 떨어져서 맨 날 영감이랑 맨 날 이렇게 놀아요”(참여자9)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이때까지 과란만장해 아주 이렇게 좋은 인생은 아닌데...”(참여자8)

## 2. 맥락적 조건: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감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를 유발시키는 특수한 조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조건이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감’으로, 노인 참여자들은 외로움, 무력감, 불안감, 속상함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생각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다.

### 1) 외로움이 큼

노인 참여자는 갑작스레 배우자를 떠나보내거나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노모나 수양엄마를 잃고 혼자되면서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몸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거나 귀가 들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었다.

“갑작스리 마누라가 세상 떠나고 또 정이 그래 들었던 사람하고 헤어지니까 혼자 살다보니 우울증이

걸리는데.. (중략) 죽은 사람 오지도 않을 텐데 거 기 다리는 기 어떤 때는 한 장면 영화 같애. 그래 아주 내 생각에 그 참 떠나보내는 사람이 떠나갔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오겠지 하는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참여자1)

“누가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어도 내가 문을 못 열 어줘 못 오는 거야. 내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까지 기브스를 했으니 어떻게 움직 일 수가 있어야지.”(참여자8)

“누가 만나도 얘기가 전혀 안 들리니까 집에서 나오기 싫더라고.. 사람 상대하기가 싫더라고. 이거 뭐 들어야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깐 아이, 저 여자는 병어린가 왜 말도 안하고 그런 생각만 들어가고..”(참여자8)

### 2) 무력감에 빠짐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배우자나 노모와 사별 후 자책감과 무기력함으로 인해 삶이 귀찮아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온전치 못한 자식들로부터는 어떠한 도움을 바랄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자괴감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졌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진짜 너무 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점점 그려지는 거지.”(참여자1)

“(아저씨가) 죽고 나니까 한동안은 맥아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중략) 왜 이렇게 자꾸 드러눕고만 싶은가 했는데 이상도 하다 왜 이렇게 드러눕고만 싶은...”(참여자2)

“기운이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지 그러니까. (중략) 견딜힘이 없어. 내가 지금 자꾸 눈물만 나.”(참여자8)

“누구 하나 도와주는 놈 없고 자식이라고 소용도 없는 거고 손주도 그거 어려서부터 내가 다 죽어가는 거를 살려서 키워냈는데도 그거마저 그렇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못써가지고 여제도 그 저기를 가니까

돈을 많이 달래. 성심병원에 가니까 그래서 내가 집안에 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나사사 뭇 한다고 돈을 그렇게 들일 수가 있나”(참여자3)

3) 불안감이 커짐

노인 참여자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과 같은 불안증세를 보였다.

“정신적인 게 저 신경이 날카로워갔고 시계소리 똑 똑 똑 하는 게 다 들리고 그냥.”(참여자9)

“아유, 가슴이 두근두근 대면서. 가서 문이 걸렸나 하고 문을 열어 열어봐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잘 잠갔는데 잠그지 않은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핸드폰도 주머니에 있는데 안 가져 나온 줄 알고 또 핸드폰도 가져올라그러고”(참여자10)

4) 속상함이크

노인 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에 걸린 아들이나 장애아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걱정을 끼치거나 가산을 탕진하고 폭력을 쓰는 등 몹쓸 행동을 할 때, 배우자나 동거자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또는 도둑누명을 쓰는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마음이 크게 상하면서 절망감에 빠지곤 하였다.

“너무 속을 썩였어요 (중략) 밥이라도 좀 먹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먹고 술만 먹으니 거기다 연락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뭐 알콜 병원이니까 그래도 그런데 저렇게 안 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그럼 여기서 니가 죽든 내가 죽든 죽자.”(참여자3)

“나는 아주 뭐 00가 그 지랄하는데 나는 뭐 금방 죽고 싶어 아주.”(참여자5)

“속상할 땐 죽고 싶어. 말 안할 때, 마누라가 말 안하고 그럴 때 속상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소리가 클 때, 아우 왜 불을 안 켜? 그러면 내가 또 기분이 나쁘고”(참여자10)

“돈을 지갑에 뒀는데 나보고 가졌대. 그니까 그게 치매지. 내가 돈을 왜 가져? 아쉬우면 달라고 그러지. 그걸 훔쳤다고 나보고 아휴 기가 막혀서 이게 도둑누명 쓰니까 또 속상하더라고.”(참여자8)

3. 중심현상: 죽음에 대한 갈망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자살 위기의 노인들이 경험한 것은 ‘죽음에 대한 갈망’으로 자살생각을 하고 자살방법을 모색하였다.

1) 자살생각에 빠짐

절망감에 빠진 노인 참여자들은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죽음이 해결방법으로 생각되면서 자살을 고려하였다.

“우울증이 생기니까 이 다음부터는 심하니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죽을 생각 밖에 안 드는 거예요”(참여자1)

“하다하다 안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 얘기를 한다고 내가 죽는 얘기를 하고 아프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살 도리가 없잖아.”(참여자8)

“내가 전생에 뭘 죄가 많아서 내가 오죽해서 우리 서이가 한꺼번에 죽자고.. 내가 그냥 한 날 같이 자살하자는 거지.”(참여자 6)

“근데 아들 때문에 지금 아주 너무너무 내가 자살할 정도야. 내가 죽으면 우리 저저는 그냥 죽을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모르겠다. 난 나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말거다 누가 돌봐주던지 죽으면 누가 처치를 해주겠지, 그 생각에 뭐 그럴라고 작정을 했었어.”(참여자3)

2) 자살방법을 모색함

일부 노인 참여자들은 자살생각에 빠지면서 구체

적으로 자살방법을 생각하였다. 목을 매거나, 떨어지거나, 차 사고를 내거나, 약이나 농약을 먹거나 하는 등과 같은 자살방법과 이를 실행한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였다.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별 생각 다 나죠 뭐 가로수 나무 저 나무다가 목을 매면 금방 죽겠지. (중략) 별 생각 나지, 차를 끌고 원창고개 가서 내리 굴러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죽겠다는 생각 밖에 안 떠올라요”(참여자1)

“내가 저거 약을 한 달 해놔서. 아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흠 이거 하구 아주 잔뜩 먹어버리고.”(참여자3)

“약을 먹고 자살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잠도 안 오고.. 아주 소양강 다리에 다 목을 매고 탁 죽고 싶어.”(참여자8)

“죽을 때 약을 먹고 죽느냐 뭐 떨어져죽느냐 목을 매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참여자10)

#### 4. 중재적 조건: 생을 이어주는 끈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인 상황을 말하며, 주어진 상황은 맥락적 조건 속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노인 참여자들에게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의지함’,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함’, ‘마음을 다스림’ 세 가지가 ‘생을 이어주는 끈’이라는 중재적 조건으로 드러났다.

##### 1)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의지함

먼저, 노인 참여자들은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죽음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고 생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노인 참여자들은 가족이 아닌 친구나 이웃 등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그들과 어울려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속상한 것을 털어버리곤 하

였으며,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살펴주는 고마운 주변 사람으로 인해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었다.

“남하고 대화하면은 이 모든 잡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지.”(참여자1)

“그 할머니가 뭐 해먹으면 같이 먹고 얻어먹었으니까 또 나도 갖다 주고 그 할머니가 한 번은 뭐 팔죽을 쑤었다 하면은 나도 뭘 갖다 주어잖아요 나도 한 축해서 맥어야지. 그래 서로 노는 거야.”(참여자4)

“오늘 누구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저 가방을 하나 사주고 (중략) 성, 그러면 안돼. 성이 일단 살아야지. 참 인간 안 되면 죽는 수밖에 없어. 자기 동생도 그렇게 해서 죽었대요 술 때문에 그러타 그러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날 일으켜주고 한 바퀴 돌다가..”(참여자3)

“지금 아저씨가 나한테 해준 게 마음이 따뜻하지. 나를 불쌍하다고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그게 고맙더라고 아이, 나를 뉘지거나 말거나 그냥 생각 안하면 저건데, 혼자 그렇게 냉방에서 먹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가자고 그런 말 하니까 고맙더라고”(참여자8)

##### 2)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함

노인 참여자의 ‘가족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을 이어주는 끈’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노인 참여자들은 키우는 동안 제대로 못해줘 미안함이 많은 멀리 살고 있는 딸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알코올중독 아들이나 혼자된 아들, 장애인 아들 등과 같은 온전치 못한 자식을 보살펴줘야 한다는 생각, 자신의 자살이 자식과 친척에게 망신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선 동생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 등으로 살기로 마음을 다지고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엄마 9월 달에 내가 꼭 가게. 그래서 딸이 올 때까지

지 죽어도 살아야 돼. (중략) 여기 우리 딸 줄라고 내가 사놨어.”(참여자3)

“왜냐하면은 너네들 둘을 두고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사나? 그래서 어떻게 사나?”(참여자6)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 이러면 안 된다. 애들 아이들 망신이고 친척 망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선 안 된다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하지.”(참여자10)

“이 돈을 내가 만약 죽으면 누가 갚냐고 그자? 보증을 선 내 동생이 갚아야 되는데 내 동생도 남편 없이 혼자 저카고..”(참여자3)

### 3) 마음을 다스림

세 번째 ‘생을 이어주는 끈’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노인 참여자들은 자살을 할 경우 저승에서 받을 고통이 다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살생각을 접게 되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우울증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것이 마음을 잡는데 도움이 됨을 깨닫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아가 하였다.

“얼른 가고 싶지만 갔다가 내가 그 영혼이 그 살아서 고생은 거짓말을 해서 비킬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죽어 노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어 이 몸을 하루 저녁에도 천 번 죽었다가 천 번 살았다가 한다면은 그 죄를 어떻게 그 고통을 어떻게 하느냐고 불가마에다가 꿰이지 쇠구정으로 찌르지 이건 뭐 바늘로 찌르지 뭐 말도 못하는 고통을 준대요. 글썄 그러니까는 못해지.”(참여자5)

“먼저까지는 성격이 뭐 한 가지를 하면 자꾸 고민고민을 하고 자꾸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안 하고 편안하게 할라고 그러고, 뭐 긍정적으로 살라고 그러고”(참여자7)

“우리가 하에 속하잖아. 그니까 하에서 상이면 최

고지 뭐.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 돼. 자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참여자10)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그저 남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근데 그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 봤는데도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더라니까. 약을 먹으니까 생각이 나도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얼른 잊어버리고”(참여자)

“모든 걸 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참여자10)

## 5. 작용/상호작용 전략: 버팀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며 반응하는데 쓰이는 방식을 말한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갈망’이라는 중심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버팀’ 전략을 쓰고 있었다.

### 1) 팔자로 여김

‘버팀’ 전략은 노인 참여자들은 초년부터 노년까지 평탄치 않게 살아온 삶을 팔자로 받아들이고, 팔자대로 살다가 가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모든 것이 내 팔자고 운명인데 나한테 준 업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참여자3)

“밥 한 숟갈 있으면 그거 떠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아유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아유 이것도 만족이다 하고 살아. 내 팔자대로 살아야지 뭐.”(참여자6)

“난 그렇게 생각해 죽는 것도 팔자고 사는 것도 팔자고, 병드는 것도 팔자고, 오래 사는 것도 팔자대로 산다고 그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팔자 태어난 팔자대로 사는 게 맞아.”(참여자8)

### 2) 체념함

노인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 중 ‘체념함’은 삶에서 좋은 것이 없어도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므로 체념한 상태로 죽을 때를 기다리며 산 저승으로 나아가는 모

습이었다.

“잠이 안 올 때도 그러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나 한심한 게 이렇게 살아야하나 어떤 때는 그래 혼자 이게 산 저승이다 그래.”(참여자4)

“그냥 세월아 빨리 가라 나이 먹으면 빨리 죽겠지.”(참여자1)

“밥이나 먹고 이제 죽을 때나 바라는데. 더 이상 바랄게 없어.”(참여자6)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살았으니까 살았으려니 하고”(참여자10)

## 6. 결과: 깨끗한 죽음을 고대함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살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은 죽음을 갈망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버티면서 ‘깨끗한 죽음’을 맞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이들이 바라는 깨끗한 죽음은 자식이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하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 1) 폐 끼치지 않는 죽음을 맞기 바람

노인 참여자들은 자식이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깨끗하게 죽음을 맞기 바라는 마음이 컸다. 장기간 아파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어 자식들이 직접 병수발을 하거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을 걱정하였고, 사후에 자신의 흐트러진 살림살이를 치우거나 묘지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부담을 주는 것도 피하고 싶어 하였다. 가족이 없는 노인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나는 진짜 죽는 게 제일 걱정이야. 죽는 기. 내가 어떻게 죽어야 깨끗하게 죽느냐 나는 이게 제일 걱정하는 거 이거예요 (중략) 자식들한테서 오줌통도 못가리고 죽으면 어떡해요”(참여자1)

“그 가족들의 고통을 시키면서 병수발을 하고 사는

거 돈은 돈대로 없애고 그게 걱정이예요 죽는 게 걱정이 아니라.”(참여자7)

“유언을 남긴다면은 이제 나를 화장해가지고 바로 버리던지, 그러지 않으면은 49제까지만 나두었다가 엄마 꺼하고 같이 해서 엄마하고 해서 또 어디 갖다 버리던지 뿌리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혼자서. 그러면 저네들도 편하잖아. 이제는 무덤도 필요 없어요 무덤도 저기저기 누가 별초를 해.”(참여자8)

“뭐든지 다 내빼리고 그릇도 그냥 열어보니 모두 지지한 거. 아유 내비리야지. 접시 그 오래된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요만치 해서 엿저녁에 갖다 내비렸어. 죽으면 이런 거 버리느라고 힘들텐데. 내가 다 버리고 죽어야지.”(참여자5)

### 2) 고통 없는 죽음을 바람

노인 참여자들은 며칠만 아프다 죽음을 맞거나 자다가 죽음을 맞는 죽음복을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은 간병을 해야 하는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과 고통 없이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조금 살다가 그냥 자식들한테 고생 안시키고 얼른 갔으면... 그거 이제 항상 그게 이제 저저지 뭐... 항상 이렇게 잘 있다가 그냥 자는 거 멩키로 가는...”(참여자9)

“기도는 뭐 댄 말 안해. 그저 자다가 자다가 아무도 저도 모르고서 자다가 데려가라고 길에다 누가 아유 누가 죽었데, 아유 하나님 저 그 복 주세요 밥 먹다 그냥 죽었데요, 하나님 그 복 저주세요 맨 날이래. 어느 누구도 고통 주지 않고 그렇게 살고”(참여자6)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살 위험이 큰 춘천 거주 노인 10명을 개별 심층면접하여 자살 위기 속 삶의 경험을 근거이

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초년부터 노년까지 고달픈 인생살이가 누적되어 왔으며, 배우자/노모의 사망이나 온전치 못한 자녀 또는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갈망하게 되어 자살 방법까지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까운 타인에 대한 의지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 및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목숨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 삶을 버티어 내고 있으며, 깨끗한 죽음을 맞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인 참여자가 죽음을 갈망하게 된 인과적 조건은 ‘누적된 고달픈 삶’이었다. 노인 참여자들은 자살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불행한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반추하면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생애과정 관점에서의 누적적 불이익 이론’으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은 생애 초기의 불리한 특성들이 전 생애과정동안 체계적으로 누적되어 노년에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Sampson & Laub, 1997; Dupre, 2008). 그런데 자살 위기에 속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노인이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삶을 인식함에 있어서 인지적 왜곡이 심하여 가정적으로 불행하고 사회적으로 불리했던 삶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들은 현재의 고달픈 삶이 과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과거 경험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함으로써 삶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인생회고, 의미치료, 이야기치료 등의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참여자들이 죽음을 갈망하게 되는 맥락적 조건은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감’이었다. 노인 참여자들은 배우자나 노모의 사망 또는 본인의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 무력감, 불안감, 속상함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자살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진 세월에 대한 회한, 절망적이며 처량한 신

세, 무기력함, 의지할 곳 없는 고독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했음을 보고한 Lee & Choi(2015) 연구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우울증 환자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미래가 나아질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절망감 정도가 우울증상의 정도보다 자살 계획, 자살 행동에 대한 예측도가 높다는 Beck, et al.(1993)의 절망감 이론과 Kuo, et al.(2004)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절망감은 장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로 우울증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간주되고 있고(Park, 2005), 우울증을 평가하는 척도와 절망감을 평가하는 척도 사이에 중등도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Greene, 1989) 우울증을 진단함에 있어서 절망감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Abramson, et al.(1989)은 절망감을 특징으로 하는 절망감 우울증(hopelessness depression)을 우울증의 아형으로 제안하고, 이러한 절망감 우울증이 자살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우울증을 진단함에 있어서 노인이 경험하는 절망감 우울증에 대해 보다 세심히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인 참여자들은 우울증이 더 심화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골몰하여 구체적으로 자살방법까지 생각하는 ‘죽음을 갈망’하는 중심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갈망하면서도 이들은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며 생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중재적 조건으로 밝혀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의지함’,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함’, ‘마음을 다스림’은 자살예방에 있어서 이미 언급되는 여러 보호요인들 중 사회적 지지, 가족유대감, 낙관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망을 강화하고, 알코올중독이나 장애를 지닌 성인자녀 또

는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자녀나 손자녀 돌봄으로 받는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울증 약복용이 심리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울증 약복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가 요구되며, 우울한 노인들이 낙관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인지행동치료나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심리상담도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자살 위기의 노인들은 평생 고달픈 인생을 팔자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버티어 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살 시도 노인이 절망에서 벗어나 자신과 삶, 가족과 이웃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고통과 여생에 대한 희망을 공존해나가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다는 Park(2007) 연구, 다시 살아난 후에도 여전히 삶은 힘들지만 삶에 순응해가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Im & Kim(2010) 연구, 자살 시도를 계기로 자기 삶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Jo & Kim(2008)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오히려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에 들어서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노인을 유형화한 Kim(2013) 연구에서 제시된 막연히 살아가는 사람에 가까우며, 다시 살게 된 후에 체념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한 Oh, et. al.(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자살 위기의 노인들은 삶을 버티어 내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고통 없이 맞는 ‘깨끗한 죽음을 소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3)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죽음’을 위해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을 바라는데 비해(Kim, et. al., 2004), 자살 위기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노인들은 단지 ‘고통 없는 죽음’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으로 죽음을 깨끗하게 맞이하길 소망하였다.

본 연구는 자살 위기에 처한 노인들의 심리상태와 그들의 현재 삶의 태도 및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자살 위험 노인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 및 접근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자살 위기의 노인의 삶을 생애과정의 누적적 불이익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절망감을 동반한 우울증이 노인자살의 중요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자살 위기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삶에 대해 의미를 재부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상담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담에 대한 노인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농복합도시인 춘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다른 대도시에 거주하는 자살 위기의 노인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가 남녀 간에 그리고 전기고령 노인과 후기고령노인 간에 차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한 본 연구는 ‘춘천노인생활실태조사(2016)’의 조사참여자 중에서 연구참여자를 선정함에 따라 이론적 표본추출을 통한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근거이론 연구방법에서의 개방코딩과 축코딩에 의한 자료분석을 통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에 그쳐, 선택코딩과 과정코딩을 통해 근거이론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보완하여 추후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6A3A01033504).

## References

- Abramson, Lyn Y., Gerald I. Metalsky, and Lauren B. Alloy.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 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2): 358-372.
- Bae, Jin Hee and Ki Wook Um. 2009. Factors Affecting Suicide Attempt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4): 1427-1444.
- Beck, Aaron T., Robert A. Steer, Judith S. Beck, and Cory F. Newman. 1993.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Clinical Diagnosis of Depression. *Suicide Life Threat Behaviour*. 23(2): 139-145.
- Dupre, Matthew E. 2008. Educational Differences in Health Risks and Illness over the Life Course: A Test of Cumulative Disadvantage Theory. *Social Science Research*. 37(4): 1253-1266.
- Eom, Tae Wan. 2007. Elderly Suicide and It's Related Factors: Focused 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Mastery in the Effects of Hopelessn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2): 355-379.
- Greene, Sheila M.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Hopelessness: Implications for Current Therapies of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4(5): 650-659.
- Han, Sam Sung, Sung Wook Kang, Wang Keun Yoo, and Young Gyu Phee. 2009.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9(1): 192-212.
- Heisel, Marnin J. 2006. Suicide and its Prevention among Older Adul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1(3): 143-154.
- Hwang, Jung Woo, Kang Uk Lee, Jung Yoo Kim, Dong Ha Lee, and Doo Myung Kim. 2017. The Affection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Living Together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 Rel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45(1): 36-62.
- Im, Mi Young and Yun Jeong Kim. 2010. A Phenomenological Study Experience of Suicide Attempt in Old Ag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3): 175-190.
- Jo, Kae Hwa and Yeong Kyeong Kim. 2008.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storation Experience for Suicide Ideation of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2): 258-269.
- Jung, Kyung Hee, Young Hee Oh, Yoon Kyung Lee, Mi Ae Oh, Eun Na Kang, Kyeong Rae Kim, Nam Hui Hwang, Se Jin Kim, Sun Hee Lee, Suk Koo Rhee, and Song Iee Hong. 2017. *Survey of the Elderly in 201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Hyoung Soo. 2002.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i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1): 159-172.
- Kim, Hyun Soon and Byeong Seok Kim. 2007 A Path Analysis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9(3): 801-818.
- Kim, Mee Hye, Kum Ju Kwon, and Yeon Ok Lim. 2004. Study on 'Good Death' that Korean Aged People Recognize: Blessed Dea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2): 195-213.
- Kim, Yu Jin. 2013. A Study on Experiences of Older Adults' Getting Back to Life and Rediscovering a 'Will to Live' Following Suicide Attemp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5(1): 127-146
- Kuo, Wen Hung, Joseph J. Gallo, and William W. Eaton. 2004. Hopelessness, Depression, Substance Disorder, and Suicidality-a 13-year Community-based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6): 497-501.
- Kwon, Jung Don, Yu Jin Kim, and Tae Young Um. 2011. The Meaning and Pathways of Suicidal Experiences among Older Adults: A Grounded Theory Metho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2: 419-446.
- Kwon, Oh Gyun and Jun Soo Hur. 2013. A Study on the Causal Model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Low: Income Elderly Persons who Living Alone-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Hopelessn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1(4): 65-93.
- Lee, Gwang Sook and Gyun Choi. 2015.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Latter-aged Elderly Suicide Attempt. *Korean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15(7): 244-254.
- Lee, Sang Woo. 2017. A Longitudinal Study on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in Old People: Using a Panel Logit Mode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3): 191-229.
- Lee, So Chung. 2010. Socio-economic Factors of Elderly Suicide.

-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6(4): 1-19.
- Lee, Yung Chul. 2014. Reflecting on the Grounds for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d Method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8(1): 187-214.
- Lim, Yeon Ok, Hyun Sook Yoon. 2017. Process of Old Age Stress Leading to Suicidal Ideation: Focus on Mediator of Social Support, Mastery,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1): 123-149.
- Lofland, John and Lyn H. Lofland 1995. *Analyzing Social Settings: A Guide to Qualitative Observation and Analysis*. 3th Ed. Belmont, CA: Sage.
- Lyu, Ji Young. 2018. Theoretical Background to Explain Suicide among Elderly. *Older Adult's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Prevention*.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eds. Seoul: Bakmoonsa.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9. *2019 White Book*.
- Oh, Jung A, Ui Bo Shim and Kyu Ryang Han. 2018. Study of the Life History of the Elderly with Suicide Attempt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Science*. 29(1): 3-21.
- Padgett, Deborah K. 1998.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Park, Ji Young. 2007. Experience of Committing Suicide of Elderly Suicide Survival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7(1): 295-330.
- Park, Young Nam. 2005. Hopelessness Depression: Is it a Meaningful Subtype of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44(4): 425-431.
- Sampson, Robert J. and John H. Laub. 1997.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Terence P. Thornberry, 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hah, Ajit and Tamal De. 1998. Suicide and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ic Clinical Practice*. 2(1): 3-17.
- Stern, P. N. and E. K. Covan. 2001. Early Grounded Theory: Its Processes and Products. In R. S. Schreiber and P. N. Stern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eds.
-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CA: SAGE Publications.
- Yang, Soon Mi and Choon Seek Lim. 2006. A Relative Effects of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of the Rural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32(1): 377-397.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권오균, 허준수. 2013. 저소득 독거노인의 자살생각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 우울감, 절망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 65-93.
- 권중돈, 김유진, 엄태영. 2011.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노인복지연구*. 52: 419-446.
- 김미혜, 권금주, 임연옥. 2004. 노인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의미 연구: '복(福) 있는 죽음'. *한국사회복지학*. 56(2): 195-213.
- 김유진. 2013. 자살 시도 노인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1): 126-146.
- 김현순, 김병석. 2007.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801-818.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 박영남. 2005. 절망감 우울증. 의미있는 우울증의 아형인가? *신경정신의학*. 44(4): 425-431.
- 박지영. 2007. 노인자살 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1): 295-330.
- 배진희, 엄기욱. 2009. 노인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9(4): 1427-1444.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2019자살예방백서.
- 양순미, 임춘식. 2006. 농촌노인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우울의 효과. *노인복지연구*. 32(1): 377-397.
- 엄태완. 2007. 노인 자살관련 요인: 무망감과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통제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355-379.
- 오정아, 심의보, 한규량. 2018.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의 생애사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3-21.
- 유지영. 2018. 노인의 자살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 노인의 자살생각 및 자살예방.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편)*. 서울: 박문사.
- 이광숙, 최균. 2015. 후기고령노인의 자살 시도 경험. *한국콘텐츠학회*. 15(7): 244-254.
- 이상우. 2017.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 관한 중단연구: 패널 로짓 모형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7(3): 191-229.
- 이소정. 2010.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6(4): 1-19.
- 이영철. 2014. 근거이론의 근거에 대한 음미: 방법론과 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1): 187-214.
- 임미영, 김윤정. 2010. 노인의 자살 시도 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75-190.
- 임연옥, 윤현숙. 2017. 노년기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 사회적 지지, 삶에 대한 통제감, 우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2(1): 123-149.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계화, 김영경. 2008.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극복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38(2): 258-269.
- 한삼성, 강성욱, 유왕근, 피영규. 2009. 노인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9(1): 192-212.
- 황정우, 이강욱, 김정유, 이동하, 김두명. 2017. 동거 및 독거노인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1): 36-62.

---

Received: Jan. 10, 2020 / Revised: Feb. 3, 2020 / Accepted: Feb. 3, 2020

## 자살 위기에 처한 노인 삶의 경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의 삶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자살 위험이 있는 춘천거주 노인 10명을 개별 심층면접하여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해 자살 위기 노인의 삶의 경험을 56개 개념, 16개 하위범주, 6개 범주로 도출하였고, 축코딩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패러다임모형에서 ‘누적되어온 고달픈 삶’(인과적 조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감’(맥락적 조건)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갈망’(중심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목숨을 이어주는 끈’(중재적 조건)으로 인해 삶을 버티어 내고 있었으며(작용/상호작용 전략), 깨끗한 죽음을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었다(결과).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생애과정의 누적적 불이익 이론과 절망감 우울증의 관점에서 노인 자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내 사회관계망의 구축 및 삶에 대한 재의미 부여와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상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자살, 누적적 불이익, 절망감, 우울증, 사회관계, 죽음

**Profiles** **Nam Jae Heo** : She received her Ph.D. from Hallym University, Korea in 2016. The title of her doctoral dissertation is ‘The Social construction of elderly care-Crow’s eye view: The nursing of Korea’. She is a Researcher of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and participated in the qualitative research of suicide of elders in Chuncheon in 2018. She also takes part in the research for the integrated care service system for elders in Gangwon, and in the project of the Social Living Lap of Chuncheon. The major interests of her research are care for elders, the education for good care and social service(joyheonj@gmail.com).

**Yeon Ok Lim** : She received her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08. She is a Research Professor of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Her major specialty is Social welfare for the aged and her research interest includes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s with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nd the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elders. Her recent published articles are “The effectiveness of problem-solving therapy program in suicide prevention for the depressed elderly living alone”, “A study on the effect of spirituality, social support, depression to death anxiety of the older adults”, and “Suicidal impulse caused by stress in Korea: focusing on mediational effects of existent spirituality,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marialim@chol.com).